

부안지역어의 특수조사 *

김 옥 화 **

I. 서 론

본고에서는 전북의 부안지역어에서 사용되는 특수조사의 목록과 분포를 살펴보고 이들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필자는 김옥화(2001)에서 이 지역어의 특수조사 목록을 그 이형태 목록과 함께 제시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특수조사들이 실지 발화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이고, 이들의 분포와 의미 기능, 자유변이형과 이형태 교체 양상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그간에 이 지역어의 특수조사만을 따로 다룬 업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북방언의 특수조사에 대해서는 이태영(1986, 1988), 서울교대국어교육과(1992)에서 논의된 바 있고, 더 나아가 서남방언의 특수조사에 대해서는 이기갑(1998), 배주채(1998) 등에서 포괄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이태영(1986)은 완주군, 진안군, 임실군에서 사용되는 특수조사의 '의미 한정 기능'을 파악하고자 한 것으로, 전북방언의 대표적인 특수조사의 목록과 의미를 문맥과 구문에 따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태영(1988)은 이태영(1983, 1984, 1985)의 논의를 토대로 전북방언의 특수조사 '-가, -다가' 등이 문법화 한 과정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이다. 한편 서울교대 국어교육과(1992)에서

* 이 논문의 초고는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001년 가을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 서울대 전임대우강사

는 전북 고창지역어의 특수조사를 그 의미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그 목록과 용례가 소략하기는 하나 한 지역어의 특수조사 목록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연구 성과와 함께 표준어의 특수조사에 대한 연구 성과를 논의에 참고하고자 한다.

본고에 사용된 예문은 부안읍 주위의 3개 면(주산면, 동진면, 보안면)을 조사지점으로 하여 세 차례에 걸쳐 조사한 자료를 녹취한 것이다.¹⁾ 각각의 면에서 조사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인어 차원 이상의 언어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II. 특수조사의 목록과 분포

특수조사는 격조사와는 달리 격 표시와 문법적 기능 없이 의미를 담당하는 것을 주임무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어떤 형태를 특수조사로 보느냐, 아니면 접미사나 의존명사 또는 활용어미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연구자들간에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채완(1990)에서 언급한 대로 ‘은, -도, -만, -야, -라도, -조차, -마저, -나마, -부터, -까지’에 대해서는 대개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이를 바탕으로 의미가 분명하고 분포가 자유로운 형태들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특수조사 목록을 정하였다.²⁾

-은(대조), -만(단독), -배끼(단독), -뿐이(단독), -도(동일), -덜(복수), -부텀(시작), -까장(도달), -첨(정도), -찌리(동류), -썩(균일), -마다(모두, 각각), -한질라(첨가), -이든지(선택), -이나(선택), -이라도(양보, 선택), -이라고(주제, 양보), -이사(강조), -이래야(강조), -가(강조), -다가(강조), -서(강조), -대로(차이 없음)

위의 목록을 표준어의 특수조사 목록³⁾과 비교하면 양자간의 공통점과 차

1) 조사 날짜와 제보자, 본고의 형태음소적 표기에 대해서는 김옥화(2001)을 참조 할 것.

2) 특수조사는 체언 뿐만 아니라 용언의 활용형에도 결합이 가능하며, 부사에 통합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수조사 항목 선정에 있어서는 남윤진 (1997)과 채완(1990, 1995), 이희자·이종희(1998) 등을 주로 참조하였다.

3) 최현배(1937), 채완(1977, 1990, 1993, 1995), 성광수(1979), 홍사만(1983), 김승곤

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은, -만, -도, -이든지, -이나, -이라고, -다가' 등은 그 형태와 의미가 표준어와 완전히 동일한 경우이고, '-부터(=부터), -배끼(=밖에), -썩(=썩), -마닥(=마다), -이사(=이야)'은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그 의미는 표준어와 동일한 경우이다. 다음으로 '-까장'은 표준어에 없는 '끼리'의 의미까지 나타내므로 형태는 비슷해도 의미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질라'는 표준어의 '-마저, -조차'와 의미는 같지만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경우이다. 한편 '-가'는 표준어 연구에서는 언급된 바 없지만 방언 관련 논자들에서 특수조사로 인정해 왔고, 이 지역어에서도 그 용법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밖에 '-덜, -쩜, -찌리, -이라고, -아래야, -서, -대로' 등은 분포와 의미 기능을 고려하여 특수조사 목록에 포함시킨 형태들이다.

이제 위에서 제시한 특수조사들 각각의 분포와 의미 기능, 이형태 교체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은 (대조)

'-은'의 의미로는 '화제, 대조, 배제'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의미는 '대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서정수 1996:907-910, 이익섭·채완 1999:203-9). '-은'은 모음 뒤에서 '-는'으로 나타나며, '-은'과 '-는'은 종종 '언'과 '-년'으로 실현된다. 다음의 ⑦, ①에서 '-은'이 체언과 조사, 어미 뒤에 분포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⑦ 체언에 직접 통합된 경우

- 시방을 질 종:개 사방으가 맨 삼거리여.
(=지금은 길이 좋으니까 사방에 온통 삼거리야.)
- (아기가) 켰어라도 웃언 그대로 입능구나.
(=아기가 켰어도 웃은 전과 같이 입는구나.)
- 무시지는 거그다 담이얄성부르다잉.
(=무김치는 거기에는 담아야 할 것 같다.)
- 여그년 그것이 없드라(=여기에는 그것이 없더라).

(1989) 등에서 제시한 특수조사 목록을 말한다.

⑤ 조사 뒤에 통합된 경우

- 추울 적으는 이놈 입어야 혀(=추울 적에는 이 것을 입어야 해).
- 우리가 살: 도막은 느그들은 올 트지.

(=우리가 살 동안은 너희들은 올 테지.)

⑥ 연결어미 뒤에 통합된 경우

- 나마니로 말 혀서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

(=너처럼 말해서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

- 학동떡하고 삼:서는 순전 집안일 안 헌다꼽니다.

(=학동댁과 살면서는 집안일을 전혀 안 한다고 합니다.)

위의 예문에서 ⑤ ‘추울 적으는, 느그들은’의 경우 처격조사 ‘-에’와 특수 조사 ‘-덜’ 뒤에 ‘-은’이 쓰인 것이고, ⑥ ‘말 혀서는, 삼:서는’의 경우 연결어미 ‘-어서, -음서’ 뒤에 ‘-은’이 쓰인 것이다. ⑦~⑨ 예들 모두 ‘-은’이 가진 ‘대조’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데, 특히 ⑨ ‘우리가 살: 도막은 느그들은 올 트지.’의 경우 ‘다른 사람은 안 와도 너희들은 올 것임’을 의미하므로 ‘-은’의 대조적 의미를 잘 확인할 수 있다.

(2) -만 (단독)

‘-만’은 통합되는 선행요소가 선택되면 그 요소와 더불어 선택될 가능성성이 주어졌던 다른 후보들이 자동적으로 배제됨을 의미하기 때문에(채완 1977: 30), ‘단독’, ‘한정’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만’이 체언에 직접 통합된 예와 조사나 연결어미에 통합된 예를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의 ⑩, ⑪과 같다.

⑩ 체언에 직접 통합된 경우

- 나 어처게 가:만 만난당개(=나는 어떻게 개만 만난다니까).
- 웃만 같아입히라(=웃만 같아입혀라).

⑪ 조사, 연결어미에 통합된 경우

- 방으만 들어왔다 허문 누워(=방에만 들어왔다 하면 누워).
- 고차만 놔지(=고쳐 놓기만 했지).

위의 예문에서 ⑩의 ‘방으만’은 ‘-만’이 처격조사 ‘-에’ 뒤에 통합된 것이고, ‘고차만’은 ‘-만’이 연결어미 ‘-어’ 뒤에 통합된 것이다.

(3) -배끼 (단독)

'-배끼'는 표준어 '밖에'에 대응되는 형태이다. '-바끼, -배끼' 등의 형태로도 나타나며, 평폐쇄음과 공명자음 아래서 두음이 경음으로 실현된다(예 : 만원썩배끼는[마װן썩뻬끼는]; 뿔바끼[뿔뻬끼], 단, 공명자음 뒤에서는 수의적). '-배끼' 역시 그 분포가 자유로운 편이어서 '-만치, -서, -썩, -이나'와 같은 다양한 조사 뒤에 통합할 수 있다(㉡ 참조).

① 체언에 직접 통합된 경우

- 중학교배끼 못 냉았어라우(=중학교밖에 못 다녔어요).
- 시골서는 밥배끼 느는 것 없어(=시골에서는 밥밖에 느는 것이 없어).
- (사슴) 뿔바끼 안 깎아(=사슴 뿔밖에 깎지 않아).
- 그것배끼는 안 비는디(=그것밖에 보이지 않는데).

② 조사 뒤에 통합된 경우

- 달이 희미희미허니 실내기만치배끼 안 비지.
(=달이 희미하게 실날만큼밖에 안 보이지.)
- 니 친구기서배끼는 전화가 안 왔어.
(=네 친구에게서밖에 전화가 오지 않았어.)
- 만원썩배끼는 안 낼락혀(=만원썩밖에 안 내려고 해).
- (쌀이) 야답 말 가웃이나배끼는 안 돼(=여덟 말 반 정도밖에 안 돼).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배끼'는 주로 '아니, 못, 없:-, 몰:르-'와 같은 부정어와 함께 쓰여서 '-만'과 마찬가지로 '단독'의 의미를 나타낸다.

(4) -뿐이 (단독)

'-뿐이'는 그 의미와 분포 면에서 위의 '-배끼'와 일치한다. 아래 예문에서 '-뿐이'는 '그것 이외에는'으로 해석되며, 뒤에는 언제나 부정어가 온다.⁴⁾

- 그것뿐이 없어(=그것밖에 없어).
- 호녀뿐이 안 했는디(=홍역밖에 안 했는데).

4) '-뿐이'가 문법화된 과정과 이것이 쓰인 구문의 특징에 대해서는 구종남(2000)을 참조할 것.

(5) -도 (동일)

‘-도’는 ‘-두’로 실현되기도 하며, ‘역시, 또한’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평 폐쇄음 뒤에서는 두음이 언제나 경음으로 실현되고, 공명자음 뒤에서도 수 의적으로 두음이 경음으로 실현된다(예 : 집도[집또], 뜯도[풀또], 나락도[나락 또]; 부안도[부안또], 시방도[시방또](=지금도), 낼·도[낼·또](=내일도) cf. 일년 도[일년도], 말·도[말·도]). ‘도/두’의 예는 다음과 같다.

- 너도 어서 쟁기라(=너도 어서 쟁겨라)!
- 자네 집도 참 깨끗해(=자네 집도 참 깨끗해).
- 비루도 한 너덧 번 주어(=비료도 한 네댓 번 줘).
- (여그는) 냇·기도 읊·지(=여기는 냇가도 없지).

‘-도’는 체언에 직접 통합될 뿐만 아니라 연결어미, 격조사, 특수조사, 부사 뒤에도 통합될 수 있다. ⑦은 ‘-도’가 연결어미 ‘-응개’, ‘-음서’ 뒤에 통합된 것이고, ⑧은 격조사 ‘-보고’, ⑨과 ⑩은 특수조사 ‘-덜’과 부사 ‘까닭’ 뒤에 각각 통합된 것이다.

- ⑦ 거그 눌릉개도 불이 써지도만(=거기 눌러도 불이 켜지더구먼).//그 냉반이 차분험서도 실수 없이 말을 잘 혀(=그분이 차분하면서도 실수 없이 말을 잘 해).
- ⑧ 넘보고도 다 언니 동생 다 글하는 사생인디.
(=남에게도 언니, 동생 그러는 세상인데.)
- ⑨ 시방들은 나락들도 징그럽게 다 히 먹지만 그전이는 나락도 안 영글어.
(=지금은 벼도 추수를 많이 해서 먹지만 그전에는 나락도 안 여물어.)
- ⑩ 혼들바우 혼들옹개 까딱도 안 혀(=혼들바위 혼드니까 까딱도 하지 않아).

또한 ‘-도’가 ‘아무, 암말(=아무 말), 암것양껍(=아무것), 암시랑’ 뒤에 통합되면 ‘아무도, 아무 말도, 아무것도, 아무령지도’와 같이 해석된다(아래 예 참조)

- 아무도 없디야(=아무도 없더냐)?
- 암말도 안 혀(=아무 말도 안 해).
- 암것도 없어(=아무것도 없어).
- 시방은 암시랑도 안 혀(=지금은 아무령지도 않아).

한편 다음에 제시된 용례들은 용언어간에 특수조사 '-도'가 통합된 것처럼 보이는데, 의미상으로는 표준어의 '-지도'에 대응된다.

- 비는 오도 않고 바람부터 부네(=비는 오지도 않고 바람부터 부네).
- 시방 사람은 알도 못 허지(=지금 사람들은 알지도 못 하지).

이러한 '-도'의 용법은 중세국어 자료에도 나타나는데,⁵⁾ 공시적으로 이 때의 '-도'를 특수조사로 보기 어렵다. 용언 어간 뒤에 바로 연결되는 형태를 특수조사로 보기 어렵고, 이 지역어에서 보조적 연결어미 '-지'는 '아니 하-, 못 허-' 앞에 올 수 없으므로 위의 예문에 나타난 '-도'를 '-지도'에서 온 것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때의 '-도'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덜 (복수)

'-덜'은 '-들'로도 나타나며, 평폐쇄음과 유음 뒤에서는 '-멜'로 나타난다⁶⁾(유음 뒤의 경우에는 수의적, 예 : 밥덜[멜], 옷덜[온멜], 나락들[나락뜰]; 아들들[아들뜰](=아들들) cf. 조카딸덜[조카딸멜]). '-덜'의 분포는 매우 다양한데, 다음의 ㉠~④에 제시된 것처럼 체언, 명사구, 부사(어), 용언의 활용형, 문장 뒤에 통합되어 그 선행어가 복수임을 나타낸다.

㉠ 체언에 통합된 경우

- 노인덜 혼자 사는 디가 안 만협디여?
(=노인들 혼자 사는 데가 많지 않습디까?)
- 너그덜 올 때도 비가 겁나게 왔지야?
(=너희들 올 때도 비가 아주 많이 왔지?)
- 아들들이 어머이배끼는 몰랐어(=아들들이 어머니밖에는 몰랐어).
- 올히는 귀경들 안 간다꼽디다(=올해는 구경들을 안 간다고 합디다).

-
- 5) 보도 몯호며 들도 몯거니(석보상절 24:28), 죄 적도 크도 아니하고 술히 지도 여 희도 아니흐니라(월인석보 1:26)
 - 6) '-덜' 뒤에서도 조사의 두음이 경음으로 교체되는 현상이 자주 발견되는데(예 : 선생들도 선생들또, 애들보고 애들뽀고, 사람들기대 사람들끼다). 조카덜보고라도(조카덜뽀고라도), 이를 고려하면 '-덜'의 기저형을 /-덜/로 잡을 가능성도 있다.

(L) 명사구에 통합된 경우

- 으원 되안 사람덜이 총명허기는 형개비여.
(=의원이 된 사람들이 총명하기는 한가 봐.)
- 참 못 배완 사람들은 폭폭혀(=참 못 배운 사람들은 답답해).

(E) 부사, 부사어에 통합된 경우

- 시방은 다:들 글하는 시생인디 머(=지금은 다들 그러는 세상인데 뭐).
- 돈 많이들 바쳐(=돈을 많이들 바쳐).

(R) 용언의 활용형에 통합된 경우

- 자식을 안 날라고들 허지만 그도 서넛 나:야 혀.
(=자식을 안 낳으려고들 하지만 그래도 서너 명은 낳아야 해.)

(B) 문장 뒤에 통합된 경우

- 시방은 서로 兩尊허고 안 살다들(=지금은 서로 존대하고 살지들 않더나)?

이밖에 표준어의 ‘아이들’에 대응되는 형태로 ‘알:멸, 앤:멸’⁷⁾이 사용된다는 점이 흥미롭다(⑦ 참조). 공식적으로는 ‘*알:’, *앤:만 쓰이는 경우가 없으므로, 이들은 아마도 이전 시기에 ‘-덜’이 포함된 곡용형이 굳어진 형태인 듯하다. 그리고 ‘야:멸, 애:멸’과 같은 예도 존재하는데(⑮), 이는 ‘알:멸, 앤:멸’에서 1음절 종성 ‘ㄹ’이 탈락한 것으로 보인다.

⑦ 알:멸, 앤:멸

- 알:멸 낫:이 다 공부럴 잘 했어(=아이들 넷이 다 공부를 잘 했어).
- 알:들이 꾀들 안 하라우(=아이들이 모이지를 않아요).
- 애:무 철이 모르는 앤:들을 같어(=아주 철없는 아이들 같아).

(L) 애:멸, 애:멸

- 우리집 애:들은 손님얼 먼저 했:단 말여. 큰집 애:들보단.
(=우리집 아이들은 천연두를 먼저 앓았단 말이야. 큰집 아이들보다.)
- 가:들이 다른 애:들보단 더 안 특별허요?
(=걔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더 특별하지 않습니까?)
- 부실목 나가꼬 애:들 머리를 깎아 버리고 글했지.
(=부스럼 나서 아이들 머리를 깎아 버리고 그랬지.)

(7) -부텀 (시작)

‘부텀’은 ‘행위 또는 상태가 시작되는 기점’을 표시하며, ‘부터, -보터, -보-

7) 이는 ‘애:들(예 : 애:들까지 좋아혀(=아이들끼리 좋아해).)’과 공존한다.

톰, -버텀' 등으로도 쓰인다. 평폐쇄음 뒤에서는 필수적으로, 공명자음 뒤에서는 수의적으로 두음이 경음으로 실현된다(예 : 지넉부텀[지넉뿌텀](=지넉부터); 내년보텀[내년뽀텀](=來年부터) cf. 아직절부터[아직쩔부터](=아침 나절부터), 작년부터[장년부텀](=昨年부터)).

다음의 ①~④은 '-부텀'이 체언, 격조사(-에서), 연결어미(-어서) 뒤에 통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 ① 일요일날 아직절부터 한다고(=일요일날 아침 나절부터 한다고).
- ㉡ 봄에서보~~를~~ 씨앗을 뿌리야지(=봄에서부터 씨앗을 뿌려야지).
- ④ 대통령이 새로 앉임서부~~텀~~ 그것이 읊:어졌어.
(=대통령이 바뀌면서부터 그것이 없어졌어.)

'-부텀'은 선행요소가 무엇이냐에 따라 약간의 의미차가 있는데, ① 선행요소가 시간어일 때에는 시작 시점을 나타내며, ② 선행요소가 공간어(처소 표시어 따위)일 때는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내고, ③ 선행요소가 시간이나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닐 때는 첫번째 행동자 또는 행동의 첫번째 대상임을 나타낸다(서정수 1996:924-6).

① 시작 시점

- 그 이튿날부텀 기양 안 나갔디여(=그 이튿날부터 그냥 안 나갔대).
- 지하도 것언, 새우젓이 그전보~~터~~ 이름난 것 아녕가?
(=계화도에서 나는 것은, 새우젓이 그전부터 유명한 것 아닌가?)

㉡ 시작 지점

- 서울서버~~텀~~ 같이 왔지(=서울서부터 같이 왔지).
- 배 위에서부~~텀~~ 바둑마이로 잡히거든(=배 위에서부터 바둑알처럼 잡히거든).

③ 첫번째 행동자, 행동의 첫번째 대상

- 나이 마이 먹은 사람보~~를~~ 고만두라곤디여.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만두라고 한대.)
- 진손지부~~텀~~ (제사를) 합동으로 지내여(=중손자부터 제사를 합동으로 지내).

(8) -까장 (도달)

'-까장'은 표준어의 '-까지'에 대응되는 형태로 '-까지, -까장' 등으로 나타난다. '-까장'은 '-까지'와 '-까장'의 혼태로 보인다(이기갑 1987:188-9). 이는

어떤 상태나 행위가 끝나는 착점(着點)이나, 그러한 상태나 행위가 최종적으로 미치는 대상을 표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이태영 1986:426). 다음의 ⑦~⑨에서는 ‘까장’이 체언, 연결어미 ‘-드락’, 부사 또는 부사어 뒤에 통합되어 ‘도착점’이나 ‘한도’를 나타낸다.

⑦ 체언에 통합된 경우

- 걸어서 어디까지 갈라가디(=걸어서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 죽으리문 죽는 시늉까진 다 히:양개.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다 해야 하니까.)

⑧ 연결어미에 통합된 경우

- 배부르드락까장 먹어라(=배부르도록까지 먹여라).

⑨ 부사, 부사어에 통합된 경우

- 아직까장 옥시시다는 악얼 안 허는다.
(=아직까지 옥수수에다가는 농약을 치지 않는데.)
- 우리 어머이는 그렇게까장은 글 안 했어.
(=우리 어머니는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어.)

한편 ‘-까장’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끼리’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 저그까장 상이했나부드라(=저희끼리 상의했나 보더라).
- 아:들까지 좋아혀(=아이들끼리 좋아해).

(9) -쩜 (정도)

표준어의 ‘-쩜’은 이 지역어에서 ‘-쩜’으로 나타나며, ‘그런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를 접미사로 본 경우도 있으나(고영근 1989:515), 명사구와 같은 통사적 구성을 관계를 맺는 경우도 존재하므로(예 : 골목 어디쩜이다고(=골목의 어디쩜이라고)) 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남윤진 1997:128-9).

- 부안 같은 디는 좁옹개 골목 어디쩜이다고 하문은 다 찾어댕일 만해.
(=부안 같은 데는 좁으니까 골목 어디쩜이라고 하면 다 찾아다닐 만해.)
 - 내가 저녁으 열두시磋商 언니한테 전화허께.
(=내가 저녁에 열두시쯤 언니한테 전화할게.)
- cf. 내일 저녁때만치 가지(=내일 저녁때쯤 가지)?

(10) -찌리 (동류)

'-찌리'는 표준어 '-끼리'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 무리에 속하는 구성원만 함께'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찌리'가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 저그찌리 돌아댕겨(=저희들끼리 돌아다녀).
- 동기간들찌리 빨잖여(=동기간들끼리 빨잖아요)?

(11) -씩 (균일)

'-씩'은 수사나 수량, 정도를 나타내는 요소에 통합되어 여럿이 다 같은 수량이나 정도로 나뉘거나 매번 같은 수량이나 정도로 되풀이됨을 나타낸다. '-씩'은 '-씩'으로도 나타나는데, '시한 옷은 뜯어가꼬 한 껍데씩씩 빨잖여 (=겨울 옷은 뜯어서 한 껍데기씩 빨잖아요)?'에서처럼 두 형태가 중복되어 쓰이기도 한다.

'-씩'은 다음의 ①~⑤에 제시된 것처럼 '단위'나 '정도'를 나타내는 명사(원, 번, 주먹, 얼매), 수사(하나, 둘), 정도부사(어)(조께, 쪼끔, 겁나게)처럼 범주화된 선행어에 두루 통합될 수 있다(남윤진 1997:130-1, 서정수 1996:920) 참조).

① 명사('단위'나 '정도'를 나타내는 명사) + -씩

- 다달이 사글세로 5 만원씩 주고 살아라우.
(=매달 사글세로 5 만원씩 주고 살아야지).
- 가끔 한 번씩 먹으야지(=가끔 한 번씩 먹어야지).
- 약얼 한 주먹씩 먹는단다(=약을 한 줌씩 먹는다고 한다).
- 돈얼 얼매씩이나 받가디(=돈을 얼마씩이나 받판대)?

② 수사 + -씩

- 한 면에 하나씩 상을 췄대여(=한 면에 한 사람씩 상을 췄대).
- 그 놈을 하나씩 둘씩 꿔여(=그것을 하나씩 둘씩 꿔).

③ 정도부사(어) + -씩

- 돋뵈기는 중외허니 몇 쓸 때나 조께씩 쓰지.
(=돋보기는 중요하게 무언가 적을 때나 조금씩 사용하지.)
- 밥언 압력밥솥이다 쪼끔씩 잘 히여(=밥은 압력밥솥에다가 조금씩 잘 해).
- 돈얼 겁나게씩 내여(=돈을 아주 많이 내).

(12) -마닥 (모두, 각각)

‘-마닥’은 선행요소가 속하는 범주의 대상을 날날이 다 가리킴을 의미하며, ‘-마다’로도 나타난다. 이태영(1986:15)에서 지적한 것처럼 ‘-마닥’이 처소명사와 통합될 때는 ‘개별(個別)’의 의미를 나타내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와 통합할 때는 ‘반복’의 의미를 나타낸다(㉡).

㉠ 절마닥 대통령 등은 다 써 주는 거여.

(=초파일에 절마다 대통령 등은 달아 주는 거야.)

㉡ 거기는 날마다 비와(=거기는 날마다 비와).

만날 때마다 돈 줄 수 있간디(=만날 때마다 돈을 줄 수야 있관대?)

(13) -한질라 (첨가)

‘-한질라’는 표준어의 ‘-마저’, ‘-조차’에 대응되는 형태인데, 이 지역어에서 는 ‘-할라, -한지’ 등으로도 쓰이며(㉠~㉡ 참조),⁸⁾ 평폐쇄음 뒤에서도 유기음으로 축약되지 않고 ‘-안질라’로 나타난다(예 : 뜻한질라|포단질라).

㉠ -한질라

- 성부한질라 와 있어(=형부까지 와 있어).
- 뜻한질라 많이 쌓았는디(=팔까지 많이 쌓았는데, (먹을 사람이 없다.)).

㉡ -한지

- 질한지 맥히서 어쩐다나(=길까지 막혀서 어떻게 한다니)?

㉢ -할라

- 비할라 오네(=비까지 오네).

(14) -이든지 (선택)

‘-이든지’는 모음 뒤에서 ‘-든지’로 실현되며, 주로 ‘멋:(=무엇), 언:지(=언제), 으:디(=어디)’ 등에 붙어서 ‘~라도 가리지 않고 모두’의 의미를 나타낸다.

- 날짐승은 멋:이든지 쪼아서 먹지(=새는 무엇이든지 쪼아서 먹지).

- 언:지든지 음식은 조심히야지(=언제든지 음식은 조심해야지).

- 내 비서가 있어야 으:디든지 가제(=내 비서야 있어야 어디든지 가지).

8) ‘-한질라’는 ‘-할라’와 ‘-한지’의 혼태 결과 만들어진 것이다(이기갑 1987:188).

'-이든지'가 '-이든지 … -이든지'처럼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이나 ~이나 가리지 않고'의 뜻을 나타내어, '어떤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음'을 나타낸다. 다음의 예에서 '콩이든지 보리든지'와 '열 개든지 스무 개든지'는 각각 '콩과 보리', '열 개와 스무 개'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없음을 나타낸다.

- 콩이든지 보리든지 마당으다 도리채로 뚜두는 거여.
(=콩이든지 보리든지 마당에다 도리깨로 두드리는 거야.)
- 열: 개든지 스무 개든지 암탉 밑이다 느: 주문 그 놈 품고 앙겼어.
(=달걀을 열 개든지 스무 개든지 암탉 밑에다 넣어 주면 그 것을 품고 앉아 있어).

(15) -이나 (선택)

'-이나'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나'로 실현된다. '-이나'는 문맥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데, ⑦ 차선의 선택이나, ⑮ 수량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거나 꽤 많음을 나타내기도 하고(강조, 감탄), ⑯ '정도'의 의미나, ⑰ 비교의 대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조건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서 '-이라야'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⑭). 다음의 ⑦~⑯은 이들 각각의 예를 보여준다.

⑦ 차선의 선택

- 나 물이나 조께 주소(=나 물이나 좀 주게).
- 음료수나 한 박스씩 사가꼬 가(=음료수나 한 박스씩 사 가지고 가)!

⑮ 일정 기준치 초과(강조, 감탄)

- 우리 오랍덕⁹⁾도 야든식:이나 잡셨어라도 암시랑 안 혀.
(=우리 올케도 83세나 잡셨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 콩 싱군 자리도 이렇게나 널화(=콩 심은 자리도 이렇게나 넓어).

⑯ 정도, 대략

- 너그덜 왔을 때 한 번이나 안 봤나?
(=너희들 왔을 때 한 번 정도 보지 않았니?)
- 6 만원이나 받으문 안 쓰겄어(=6 만원 정도 받아면 되지 않겠어)?

⑰ 비교의 대상

9) 이는 올케(오빠의 아내)를 가리키는데, '오랍으덕'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 손아래 올케는 '동상으덕'이다.

- 아까 그 소리나 가트네(=아까 그 소리와 같네).
- 시뱅이나 옛날이나 가트지(=지금이나 옛날이나 같지).
- ② '-이라야'의 의미
- 나는 몰라. 너그덜이나 알지(=나는 몰라. 너희들이나 알지).

(16) -이라도 (양보, 선택)

'이라도'는 모음 뒤에서 '든지'로 실현된다. '-이라도'는 본래 양보 접속의 연결어미 '-어도'와 관련이 있으나(㉠), 양보 연결어미의 기능이 자연스럽지 못한 경우(㉡)가 존재하므로 특수조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지금은 가까운 거리라도 차 타고 땡이제, 걸어서는 안 가.
vs. 지금은 가까운 거리여도 차 타고 땡이제, 걸어서는 안 가.
㉡ 소리라도 질러야 속이 좀 풀린다. vs. *소리여도 질러야 속이 좀 풀린다.

'이라도'의 의미에 대하여 흥사만(1983:251-270)에서는, '화자가 기대하는 것이 파기된 결과 기대치보다 낮은 항목들을 소극적으로 선택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로부터 '양보', '불만', '보상'적 의미가 파생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라도'의 의미는 다음에 제시된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특히 '-이나'(차선의 선택), '-이나마'와의 의미상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다.

- 넘으 질쌈이라도 혀:서 그 놈 돈 받아가지고.
(=남의 길쌈이라도 해서 그 돈을 받아서.)
- 가서 쪼끔씩이라도 허고 와야지(=가서 조금씩이라도 하고 와야지).
- 손자라도 이렇게 킹:개 안 재미져?
(=손자라도 이렇게 키우니까 재미있지 않아?)
- 저녁으로라도 머웃대 껍데 벗기게(=저녁에라도 머윗대 껍질 벗기게).
- 조카덜보고라도 알아보라고 히야지(=조카들에게라도 알아보라고 해야지).

한편 '-이라도'가 부정사 '아무/임'에 통합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선택됨을 나타내며(㉠), 부사 다음에 쓰이면 부사의 의미를 강조한다(㉡).

- ⑦ 그것은 아무라도 히 먹어(=그것은 누구나 해 먹어).
 그건 인자 암디라도 보관허잉개(=그것은 아무 데라도 보관하니까).
 ⑧ 혹시라도 면: 적을 일 있으문 어쩌다 한번씩 써보는 거이지.
 (=혹시라도 무슨 적을 일이 있으면 어쩌다 한번씩 글씨를 써보는 것이지.)

(17) -이라고 (주제, 양보)

'-이라고'는 모음 뒤에서 '-라고'로 실현된다. 이는 인용격조사 '-이라고'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남윤진(1997:104-5)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라고 하-' 구성으로부터 인용동사의 생략이 빈번해짐에 따라 인용의 기능이 약해지고, 양보의 의미가 더해지면서 주제 제시의 기능을 하는 특수조사로 발달한 것이다. 다음의 예에서처럼 그 문맥에 따라 단순히 주제를 제시하는 경우와 (⑦), 양보의 의미(-이라고 하지만, -이라고 해야, -일지라도)와 주제를 함께 나타내는 경우(⑧)로 나뉜다.

⑦ 주제

- 살가지라고 닥 잡아먹는 짐승이 있그든.
 (-삶팽이라고 닭 잡아먹는 짐승이 있거든.)

⑧ 양보+주제

- 밥이라고 그것 조개 먹어서 쓰겄나(=밥이라고 그것 조금 먹어서 되겠니)?
- 월급이라고 열매 되도 안 혀(=월급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도 않아).

(18) -이사 (강조)

'-이사'는 모음 뒤에서 '사'로 실현된다. '-이사'는 역사적으로 '-이사'로부터 변천된 형태로 그 선행요소를 특별히(유별나게) 강조하는 의미를 가진다(서정수 1996:916-8). 서남방언의 '-이사'가 표준어의 '-이야'와 다른 점은 '-에사'의 경우에 '-에' 없이 '-사'로만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이기갑 1998:76, 예 : 오늘에사/오늘새오늘싸 왔다(=오늘에야 왔다).).¹⁰⁾ '-이사'는 문맥에 따라 '물론, 당연히'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며(⑦), 어떤 행위가 일어난 때를 강조

10) 이는 중세국어 시기에 '오늘, 너실(來日)' 뒤에서 처격조사 '에'의 통합이 필수적으로 저지되던 현상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이현희 1995:537-9). 표준어에서는 '*오늘야'처럼 처격조사가 생략된 예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여 ‘~에 이르러 비로소’ 정도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⑦ ‘물론, 당연히’의 의미

- 너들이 사 쌤:지(=나들이야 많지, 혼하지).
- 뽕나무를 캐기 사 캐야 허는디(=뽕나무를 캐기는 캐야 하는데).
- 시어마니한테 사 그렇게 안 쓰제(=시어머니한테야 그렇게 안 쓰지).

⑧ 때를 강조 : ‘~에 이르러 비로소’의 의미

- 나중으 사 붙여 주드랑개(=나중에야 붙여 주더라니까).
- 애들도 인자 사 왔네(=애들도 이제서야 왔네).
- 메칠 되어서 사 학동떡 만나서 인사 했:능개벼.
- (=며칠 되어서야 학동떡을 만나서 인사를 했는가 봐).
- 해 다 강개산 왔습디다(=해가 다 저서야 왔습니다).

(19) -이래야 (강조)

‘-이래야’는 표준어 ‘이라야’에 대응되며, 모음 뒤에서는 ‘-래야’로 실현된다. 아래 예문에서 보듯이 ‘-이래야’는 ‘강조하여 조건으로 삼는’ 의미를 나타낸다.

- (채소가) 햇볕이 어서 난 놈이래야 맛있지.
 (=햇볕을 받고 난 것이라야 고소하고 맛있지.)
- 조계 배운 낳반이래야 일제, 여자들은 몰:라요. 남자래야 속속들이 잘 알아.
 (=좀 배운 사람이라야 알지, 여자들은 몰라요. 남자라야 속속들이 잘 알아.)

(20) -가 (강조)

‘-가’는 평폐쇄음과 공명자음 뒤에서 ‘-까’로 실현된다(예 : 그 집[그 집까]; 죽산개[죽산까], 시골개[시골까], 서울개[서울까]). 특수조사 ‘-가’는 ‘가’(去)에서 문법화한 것으로,¹¹⁾ 문법화 되기 이전에는 그 앞에 격조사 ‘-에’나 ‘-한티’ 등을 요구하고 주어는 [+유정]인 것이었으나, 문법화 이후에는 이러한 제약이 사라져 [-유정]의 주어도 가능하게 되었다(이기갑 1998:75-6, 예 : 부안개[부안까] 직장이 있는 사람(=부안에 직장이 있는 사람)). 이처럼 문법화된 ‘-가’는 처격조사 ‘-에’나 여격조사 ‘-기’, ‘-한티’ 다음에 오기도 하지만 체언

11) ‘가’의 문법화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이태영(1985)를 참조할 것.

에 직접 통합되기도 한다(⑦~⑮ 참조).

⑦ 처격조사 뒤에 통합된 경우

- 논에가 거름도 쪽:고 허문은 나락도 안 영글어.
(=논에 거름도 적고 하면 벼가 안 여물어)
- 얼굴이[간] 사마귀 나는 사람은 나데(-얼굴에 사마귀가 나는 사람은 나데).

⑧ 여격조사 뒤에 통합된 경우¹²⁾

- 가:기간 맘이 있능가벼(=걔에게 호감이 있나 봐).
- 아부지한티[간] 사:과하고 글혀(=아버지에게 사과하고 그래).

⑯ 체언에 직접 통합된 경우

- 어디가 귀신이 있다나(=귀신이 어디에 있니)?
- 그 집[간] 뒤아지가 겁:나(=그 집에 돼지가 아주 많아).
- (버스가) 죽산[간] 서요(=버스가 죽산에서 서요).
- 집[간] 사골[간] 있고, 서울[간] 있고(=집이 사골에 있고, 서울에 있고).

위의 ⑯처럼 '-가'가 체언에 직접 통합된 경우에 대개는 처격조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듯하지만, '종산개종상까' 글히여(=종산이 그래). 네 쪽이 다 한티가 붙어서 (부락을 나누기가 힘들어)(=네 쪽이 다 한데 붙어서 부락을 나누기 힘들어).'와 같은 문맥에서 '종산가'의 '-가'는 '종산'이라는 체언을 강조하는 기능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태영(1983:67)에서도 이 점에 주목하여 특수조사 '-가'의 문법적 기능을 '지시적 강조'로 규정하면서 이를 특수조사 '-이사'가 나타내는 '당위적 강조'와 구별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어에서는 '-가'에 특수조사 '-서'가 덧붙은 '-가서'가 특수조사 '-가'처럼 사용되기도 한다. 아래 제시된 예에서 '-가서'는 '가-(去)의 활용형'이 아니라 선행어를 강조하는 특수조사이다.

- 갈촌리가서 부락이 만:허지(=갈촌리에 부락이 많지).
- 손이가서 티눈 백히는 사람도 많이 있어.
(=손에 티눈 박히는 사람도 많이 있어.)

12) '-가'가 처격조사 '-에' 다음에 쓰일 때는 '-에'가 생략되기도 하지만, 여격조사 '-기', '-한티' 다음에 쓰일 때는 '-기, -한티'가 생략되는 일이 없다(예 : *아부지가 사과하고 글혀(=아버지에게 사과하고 그래)).

끝으로 ‘-가’는 ‘한티(=한데)’에 붙어 그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

- 간수를 치문 한티가 엉커(=간수를 치면 한데 엉겨). 한티가서 목텅이 되야(=한데서 목텅이가 돼).

(21) -다가 (강조)

‘-다가’는 ‘-다’로 줄어져 쓰이는 경우가 많으며, 공명자음 뒤에서 수의적으로 ‘-파가’로 실현된다(예 : 부안다개(부안파개), 사무실대(사무실때)). ‘-다가’는 ‘닥-’(把, 將, 掌)으로부터 문법화한 것으로(이태영 1988), 처격조사 ‘-에’, 여격조사 ‘-기’, 연결어미 ‘-어’ 다음에 쓰이기도 하며, 체언에 직접 통합되기도 한다(⑦~⑩ 참조).¹³⁾

① 격조사에 통합된 경우

- 나무를 굴: 속으다가 놓드라(=나무를 굴 속에다가 넣더라).
- 자니 동생기단도 하나 팔으소(=자네 동생에게다가도 하나 팔게).

② 연결어미에 통합된 경우

- 솔 끊어다가 그 놈 다 땅:고 살았어.
(=소나무 가지 끊어다가 그것 때고 살았어.)
- 떡얼 집이다 히여다 노끄나(=떡을 집에다가 해다 놓을까)?

③ 체언에 직접 통합된 경우

- 여그다가 집 진:(=지은) 지가 삽년은 넘었을 것이여.
- 부안다가 미용실 챙길락혀(=부안에다가 미용실을 차리려고 해).
- 사무실다 느문 안 쓰나(=사무실에 넣으면 안 되니)?

위의 예에서 보듯이 처격조사 다음에 쓰일 경우에는 그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연결어미 ‘-어’ 다음에 쓰이면 앞의 행동에 근거하여 다음 행동을 진행하는 계기성을 나타낸다. 또한 체언에 직접 통합되면 처격조사처럼 쓰인다. 이런 점들에서 ‘-다가’는 앞서 살펴본 ‘-가’와 그 용법이 상당히 유사하

13) 표준어에서는 ‘-다가’가 체언에 직접 붙지 못하고 처격·여격조사 또는 연결어미 ‘-어’처럼 한정된 어사 다음에만 통합되며, 그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에다가’의 한 변이형태를 이루는 성분 요소로 처리하기도 하였다(서정수 1996:945). 그러나 이 지역어에서는 ‘-다가’가 체언에 직접 통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표준어에 비해 그 분포가 좀더 넓다고 할 수 있다.

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다가' 역시 특수조사 '-가'와 마찬가지로 '한티(=한데)' 뒤에 통합되어 그 의미를 강조하기도 한다(예 : 나락을 비여서 한티다 놨다가 틈나문 훑는 거여(=벼를 베어서 한곳에다가 놓았다가 틈이 나면 훑는 거야).).

(22) -서 (강조)

특수조사 '-서'는 여격조사 '-기', '-한티' 뒤에 쓰여서 '-로부터'(始發)의 의미를 나타내고(㉠), 부사 '미리' 뒤에 쓰여서 '미리'의 의미를 강조한다(㉡). 또한 앞의 (20) '-가'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수조사 '-가' 뒤에 쓰여서 선행어를 강조하기도 한다(㉢).

㉠ 여격조사 + -서

- 너그 언니기서 전화 왔드라(=너희 언니에게서 전화 왔더라).
- 이것이 아부지한테서 떨어진 것인가만.
(=이것이 아버지한테서 떨어진 것인가 보구먼.)

㉡ '미리' + -서

- 나갈리문 미리서 말·을 허고 나갈 것 아니?
(=나가려면 미리부터 말을 하고 나가야 할 것 아니야?)

㉢ 특수조사 '-가' + -서

- 갈촌리가서 부락이 만·허지(=갈촌리에 부락이 많지).

(23) -대로 (차이 없음)

'대로'는 '-대로'로도 나타나며, 평폐체음 뒤에서 두음이 경음으로 실현된다. '-대로'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예 : 시어마니가 시기는 대로만 허고 살았어(=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았어).//저 허고 싶은 대로 허나(=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에는 의존명사로 보아야 하지만 아래 제시된 예문의 경우에는 특수조사로 볼 수 있다.¹⁴⁾ 다음의 예에서 '-대로'는 '어긋남이 없음, 차이 없음'을 나타낸다.

- 근디, 그것이 맘대로 되간디(=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판데)?

14) 이러한 처리에 대해서는 남윤진(1997:145-8)의 품사통용어를 참조할 것.

- 처, 제주도 가도 그 깔대로 (지붕을) 이어서 다 그렇게 해: 놨도만.
(=저, 제주도 가도 그 모양대로 지붕을 이어서 다 그렇게 해 놨더구먼).

III. 결론과 남은 문제

2장에서 서술한 특수조사들을 그 의미 기능별로 분류하고, 각 목록의 이 형태 교체 양상을 자유변이형과 함께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	대표형	자유변이형	이형태 교체 양상
대조	-은	-언; -년	-은~-는
	-만		
단독	-배끼	-바끼, -배키	-배끼~-빼기
	-뿐이		
동일	-도	-두	-도~-또
복수	-덜	-들	-덜~-멸
시작	-부터	-부터, -버터, -보터, -보톰	-부터~-뿌터
도달	-까장	-까지, -까징	
정도	-쩜		
동류	-찌리		
균일	-씩	-씩	
모두, 각각	-마다	-마다	
첨가	-한질라	-할라, -한지	-한질라~-안질라
	-이든지		-이든지~-든지
선택	-이나		-이나~-나
양보, 선택	-이라도		-이라도~-라도
주제, 양보	-이라고		-이라고~-라고
	-이사	-이야	-이사~-사~-싸
	-이래야		-이래야~-래야
	-가		-가~-까
	-다가	-다	-다가~-따가
	-서		
차이 없음	-대로	-대루	-대로~-때로

이와 같은 특수조사 목록은 전체적으로는 표준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지만 자유변이형이나 이형태 교체 양상에 있어서는 표준어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대개 전북방언의 공통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은~는’의 자유변이형 ‘언~년’과, ‘-들’의 자유변이형 ‘-덜’은 전북방언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어/으’ 자유변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조의 ‘-가’, ‘-다가’, ‘-서’의 존재와 그 쓰임 역시 전북방언, 더 나아가 서남방언의 공통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밖에 ‘-도’, ‘-덜’, ‘-부텀’, ‘-사’, ‘-가’, ‘-다가’의 두음이 공명자음 뒤에서도 수의적으로 경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은 이형태 교체에 있어서의 이 지역어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인다. 끝으로 ‘-한질라’는 전남방언과의 접촉에 의한 결과로 여겨지며, 평폐쇄음 뒤에서 ‘-안질라’로 나타나는 현상 역시 전북방언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본고에서 논의한 특수조사들이 다른 전북 하위지역어, 더 나아가 서남방언의 특수조사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논의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른 하위 지역어의 문법형태소 목록과 용례에 대한 체계적인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토대로 할 때 전북방언 전체의 특징은 물론, 하위지역어들 각각의 특징이 좀더 분명하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영근(1989), 『국어형태론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구종남(2000), 「‘뿐이’의 형태와 통사에 대하여」, 『언어학』 8-2.
- 김옥화(2001), 「부안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남윤진(1997),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배주채(1998), 「서남방언」, 『문법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기념 논총), 태학사.
- 서울교대 국어교육과(1992), 『전라북도 고창지역어의 모습 : 고수면을 중심으로』, 제5차 학술조사보고서.
- 서정수(1996), 『국어문법(수정증보)』, 한양대학교 출판원.
- 이기갑(1987), 「전남방언의 토씨 체계」, 『장태진 교수 회갑기념논문집』.
- 이기갑(1998), 「호남 방언 문법의 의해」, 『호남의 언어와 문화』(유영대·이기갑·이종주 공저), 백산서당.
- 이기갑(2000), 「국어 방언의 조사 체계」, 『언어학』 27.
- 이남순(1996), 「특수조사의 통사기능」, 『진단학보』 82.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태영(1983), 「전북방언의 격조사 연구 : 원주·진안·임실군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4(전북대 대학원 국어문학연구회).
- 이태영(1984), 「동사 ‘가다’의 문법화에 대하여 : 전북방언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92(국어국문학회).
- 이태영(1985), 「주격조사 {가}의 변화기제에 대하여」, 『국어문학』 25(전북대).
- 이태영(1986), 「전북방언의 특수조사에 대하여」, 『국어문학』 26(전북대).
-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 이현희(1995), 「-△’와 ‘沙’」, 『한일어학논총』(남학 이종철 선생 회갑기념논총), 국학자료원.
- 이희자·이종희(1998), 『텍스트분석적 국어 조사의 연구』, 한국문화사.
- 채완(1977), 「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 『국어연구』 39.
- 채완(1990), 「특수조사」,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채완(1993), 「특수조사 목록의 재검토」, 『국어학』 23.
- 채완(1995), 「한국어 특수조사 연구의 한 반성」, 『조선학보』 154.

- 채완(1998), 「특수조사」, 『문법연구와 자료』(이익섭 선생 회갑기념 논총), 태학사.
- 최명옥·김옥화(2001), 「전북방언 연구」, 『어문학』 73.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최형용(1997), 「형식명사·보조사·접미사의 상관관계」, 『국어연구』 148.
- 홍사만(1983), 『국어특수조사론』, 학문사.